

WOW는 '세계를 향한 창
(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입니다.

와우치즈데이
2015 SPRING VOL. 68



Spring

마음 한 페이지에 꽃 갈피로 봄날을 눌러 놓습니다.

고단하고 외로운 날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눈부시던 봄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지가 퍼는 흙 냄새와
폭발하듯 피어나던 산과 들을.



청주대학교
CHEONGJU UNIVERSITY

363-76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Tel. 043-229-8011 Fax. 043-229-8015

CHEONGJU UNIVERSITY



청주대학교
CHEONGJU UNIVERSITY

와우치즈데이

WOW CHEONGDAE



Spring

청주대학교,
오송바이오캠퍼스 시대의
서막을 열다

유물에 담긴 시간



개다리소반(狗足小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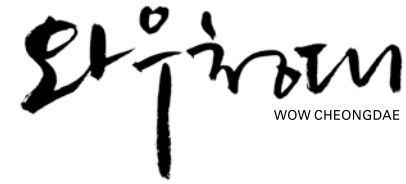
청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조선시대의 소반으로, 상 다리가 개의 다리와 같이 안으로 오그라든 모양이어서 '개다리소반' 또는 '구족반(狗足盤)'이라 불립니다. 특이하게도 충주지방에서만 생산되어 '충주반'이라고도 합니다. 은행나무를 잘 다듬어 깎아 천판을 만들었으며, 천판의 12각과 다리의 곡선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때 다 되었는데,
뜨끈한 밥 한 술 뜨고
가시지요

같이 먹어야 더 맛있지요.
나눠 먹어야 더 배부르지요.
찬은 별 거 없지만, 어여 와 앉아보오.
둥그렇게 둘러앉고 보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둥글둥글해집디다.
목구멍으로 나오는 말도 매끈매끈해지잖소.
이렇게 맛난 밥상인데, 이웃사촌을 어찌 그냥 보내오.
우리 인심이 어디 그렇던가요.
훗날 이 상이 그림거든 지나는 이 불러 세워
밥 한 술만 더 뜨게 해주면 되오.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5 SPRING VOL. 68

청주대학교 소식지 (외우청대)의 '외우(WOW)'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외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외성어 '외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ontents

02 Letter from President

총장 인사말

Special Theme

06 Special Report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중심,
오송에서 꿈의 날개를 펴다

10 Special Discussion

가능성의 무한지대를 경험하라,
나만의 경쟁력을 키워라
: 바이오메디컬학과 학생 4인을 만나다

12 Special Addition

충북 오송에 자리한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들

WOW People

22 청인보(淸人譜) 제1장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유재풍 동문(법학과 76)

26 청인보(淸人譜) 제2장

동일유리(주) 대표이사
김영진 동문(상학과 59)

28 청인보(淸人譜) 제3장

무대미술키
임일진 연극학과 교수

30 Photo Essay

배움의 나무 아래
청춘의 민낯은 찬란하여라

Glocal Report

14 Local Together

스페셜 가드너들,
젯빛 도시에 꽃 향기를 심다

16 Global Experience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미래

18 Ready Action

축구명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또 한 번의 승부차기

We Are Young

32 Young Challenger

이승우(문헌정보학과 08)
장수희(간호학과 15)
조성욱(산업디자인학과 11)
도스톤(영어영문학과 15)
허무연(경영학과 10)

Issue & News

38 Focus On

청주대,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 가동 외

42 News Brief

청주대,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28명 배출 외

44 People News

교수소식 김성일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우수평가자 선정 외
동문소식 윤종현 동문,
경북정책연구원 정책실장 임용 외

46 Special Lecture

김원용 땅콩나물(주) 대표이사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48 Donation Guide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외우청대 2015년 봄호(통권 68-1호)

발행일 2015년 5월 29일 / 발행인 황신모 / 편집인 어일선 /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363-76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 촬영 이원재 / 취재 이은형 / 가격 3,500원



더 큰 바다를 꿈꾸며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청석굴을 가득 채웠던 철쭉의 울긋불긋함을 어느새 연두와 초록의 물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청주대학교로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의 가슴에도 신록의 설렘이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주대학교 모든 구성원과 동문 여러분!

저는 대학구성원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학발전에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대학,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는 대학,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충북도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 그리고 구성원이 진정으로 자긍심을 갖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대학교가 다소 순조롭지 못한 지금의 항해를 더 큰 바다를 꿈꾸는 기회로 전환시키고, 충청권 사립 1위 대학, 거점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소신과 비전은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한 불만 해소와 구성원들의 합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청주대학교를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청권을 포함한 각 권역별 우수 대학의 지표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대학이 우위에 있거나 우위 가능성이 있는 전략 학과를 설정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전국 최상위 학과를 다수 보유한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을 확대 개편하여 기업과 경제단체와의 산학협력 및 학교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봉사도 능동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저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도출된 최대공약수를 정책으로 채택하는 민주적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통과 화합이 대학발전의 원동력이며, 비전을 완성하는 지름길임을 알기에 이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내 구성원간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학구성원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다운 대학'을 만드는 길에 구성원 여러분과 청주대학교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황신모



황신모 총장,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 참여

지난 4월 1일 오전, 황신모 총장은 교내 곳곳을 돌며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른 등교로 인해 아침을 챙겨먹지 못하고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총학생회가 기획한

'든든한 하루! 학생회와 함께' 캠페인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탠 황신모 총장은 "빵과 음료를 받으며 환한 웃음을 짓는 학생들을 보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오늘 행사는 학생회 임원들과 돈독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황신모 총장,

적십자사 성금 전달

지난 3월 24일, 황신모 총장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적십자사에 특별회비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찾은 황신모 총장은

성영용 충북적십자 회장에게 청주대학교의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500여 만 원의 특별회비를 기부해 왔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2013년 적십자회원 유공장 금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Osong Bio Campus



지난 3월 11일 준공식을 마친 오송바이오캠퍼스의 저녁 풍경.
우리대학과 총복대, 충북도립대 건물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그 옆에는 기업관이, 맞은편에는 6대 국책기관이 병풍처럼 펼쳐진 이곳에서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Special Theme

청주대학교, 오송바이오캠퍼스 시대의 서막을 열다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꿈꾸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그리고 그 안에 자리한 오송바이오캠퍼스,
청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학생들은 이곳 오송에서 내일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06 Special Report

오송바이오캠퍼스
현장을 가다

10 Special Discussion

바이오메디컬학과
학생 4인을 만나다

12 Special Addition

오송에 자리한 보건 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들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중심, 오송에서 꿈의 날개를 퍼다

오송바이오캠퍼스 현장을 가다

산학협력 친화형 학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가
지난 3월, 충북 오송에서 새로운 바이오캠퍼스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에 바이오메디컬학과만의 단독 캠퍼스를
건립하여 모든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옮기고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학생과 교수 모두 새로운 날개를 펼치게 된 것이다.



재학생 120여 명, 새로운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이하 오송첨복단지) 전국 최초로 6대 국책기관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연구기관, 교육시설이 한곳에 집약된 산학융합형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지난 3월 11일 이곳에 바이오캠퍼스가 준공되어 우리대학과 충북대, 충북도립대의 4개 학과가 이전하면서 산학융합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었다. 오송바이오캠퍼스는 좁게 표현하면 3개의 건물(청주대, 충북대, 충북도립대)만을 지칭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해 보면 그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다. 캠퍼스 주변을 둘러싼 무수한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 다양한 인프라가 캠퍼스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와 산학협력의 자산을 더한다면 세계적인 연구단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교육환경을 갖춘 셈이다.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도 이런 오송첨복단지의 특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캠퍼스 이전을 단행했다. 현재 바이오메디컬학과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120명의 학생들과 대학원생 10명, 교수 6명이 새로운 캠퍼스 생활에 적응 중이다. 1학년 학생들은 아직 본교에서 공부하며 일부 교과목을 이곳 바이오캠퍼스에서 듣고 있다.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꿈꾸는 남다른 교육환경

우리대학과 충북대, 충북도립대가 나란히 위치해 있는 바이오캠퍼스 맞은편에는 여섯 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마치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또 바로 옆에는 기업연구관, 문화센터, 벤처연구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기업연구관에는 앞으로 산학협력으로 만나게 될 50여 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대단위 연구단지 안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자 자부심이다. 5층짜리 단독 건물을 단일 학과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점 역시 학생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안팎의 교육환경의 변화 덕분에 바이오메디컬학과 학생들의 사기는 날로 상승 중이다.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2명 보강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교육에도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첨단 강의실과 실험실, 새로운 실험장비를 갖추다

우리대학 바이오캠퍼스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다. 4개의 전용 강의실과 3개의 프로젝트 랩실, 6개의 연구용 실험실을 비롯해 세미나실과 공동기기실, 정독실, 동아리실 등이 두루 갖춰져 있다. 본교에 있을 때보다 강의실과 실험실 공간이 충분해진 것 외에도 한 건물 안에 필요한 공간이 모두 모여 있어 학생들의 동선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특히 함께 입주한 타 대학과 기업들과의 교류를 대비해 설계된 대형강의실과 프로젝트 랩실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주요 공간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강의실마다 친환경 분필을 비치했고, 실험실에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시약보관함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실험실습 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안전 보호장비와 상비약을 빠짐 없이 준비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오송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초저온냉동고, 초고속냉장원심분리기, 세포 배양기, 무균대 등의 기존 장비는 그대로 옮겨왔지만, 오래된 실험장비는 대부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이번 학기부터 학생들은 세포의 수와 형태를 측정하는 광학기구(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와 형광현미경 등의 실험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밀착형 교육을 지향하다

오송바이오캠퍼스에 입주한 충북의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바이오메디컬학과는 기업 연구원들의 재교육을 물론, 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산학융합 R&D를 위해 현재 파마코스텍, 건국생활건강, 엘컴사이언스, 라파젠, 코시스 바이오, 에코프로, 교동식품 등의 기업들과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산학협력 친화형 학과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어 제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장밀착형 교육을 지향한다는 말이다. 현재 캡스톤디자인과 현장실습 과목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만큼 학생들은 진로탐색의 기회가 넓어졌고 자신감 또한 높아졌다. 특히 바이오식품과 화장품 관련 분야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만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의약 분야의 경우에는 앞으로 제약공정에 필요한 여러 과정과 관련 교과목을 보강해 학생들이 의약개발과 생산라인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교육해나갈 계획이다. ①



오송바이오캠퍼스에서 찾은 세 가지 즐거움

세 개의 대학을 연결하는 두 개의 다리에 주목하라!

우리대학과 충북대, 충북도립대 건물의 각 2층엔 서로의 건물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서로의 캠퍼스를 오가는 다리인 셈이다.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왕래가 드문 편이지만, 머지 않아 충북대 약학대학과 제약학과, 충북도립대 바이오의생명약학과 학생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개의 브릿지는 학생들간의 연대와 공동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방대한 자료의 국립의과학지식센터를 도서관처럼 사용하라!

오송바이오캠퍼스 내에는 도서관 시설이 없지만, 몇 걸음만 옮기면 국립의과학지식센터가 있다. 보건 의료와 의생명과학과 관련한 국내외 학술정보를 수집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곳이 바이오메디컬학과 학생들에게 최고의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측은 바이오캠퍼스에 입주한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해주었고, 인문사회 연계 교육과 특강도 계획하고 있어 향후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의 공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송첨복단지 내 동문들과 든든한 네트워킹을 구축하라!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오송첨복단지 내에는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 출신 동문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모교의 후배들이 이곳 바이오캠퍼스로 이전해 왔다는 소식에 캠퍼스를 찾아오는 동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모교와 어떤 교류를 모색할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이다. 청대인의 이름으로 다양한 교류와 네트워킹이 가능해진 것이다.

- 1
- 2
- 3
- 4
- 5

1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노후된 실험장비들은 대부분 새 것으로 교체했다.
 2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독실 내부
 3 오송바이오캠퍼스에는 우리대학과 충북도립대, 충북대 건물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4 새로운 실험실에서 수업 중인 바이오메디컬학과 학생들
 5 건물 중앙 로비는 윗부분을 타서 2층에서 1층이 보이는 형태로 설계됐다.

가능성의 무한지대를 경험하라 나만의 경쟁력을 키워라

오송바이오캠퍼스. 지난 3월부터 이곳으로 통학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학과 120명의 학부생은 다시 신입생이 된 기분이다. 새로운 공간, 그것도 대단위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학업과 연구의 길을 열어간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남다른 도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바이오메디컬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네 명의 학생들에게 오송바이오캠퍼스는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
오송바이오캠퍼스에 입주한 몇 안 되는 대학 가운데 우리대학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우리대학의 대표 격으로 바이오메디컬학과가 단독 입주했다. 기분이 어떤가? 캠퍼스 이전 후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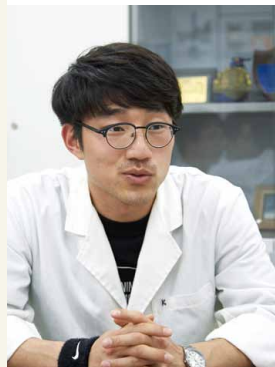
김순기 본교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이곳으로 와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죠. 청주에서 시내버스타나 셔틀버스로 통학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략 3, 40분 정도 걸리는데, 처음엔 그 시간이 아까웠지만 한 달 정도 다녀보니 차책도 보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게 됐어요.

박준혁 캠퍼스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데,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도 큰 부담이 없어요.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꼽으라면 실험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험기구들도 새로 들어왔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옆 테크노파크에서 빌려 쓸 수도 있어요. 전공과목도 개편되고 새로 개설된 것도 있어서 모든 게 새로워요. 그만큼 기대되기도 하고요.

김한경 실험 환경이 확 바뀌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마구 몰려온다고 할까요(웃음). 캠퍼스 맞은편 국책기관들을 둘러보면 서 진로에 관한 현실적인 감도 키울 수 있어서 좋고요.

조은정 작년에는 실습 연계 수업 때 기업체 방문을 한 번 밖에 못했어요. 기업들이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바로 옆에 기업연구관이 있어서 자주, 바로 실습을 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 맘에 들어요. 이곳의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아요.

김순기 가끔은 학생들 많고 복잡거리는 캠퍼스 분위기가 아쉽긴 하지만, 기업체 연구원들 같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본교에 있을 땐 시설이 오래 돼 좀 불편하기도 했고 실험하는 데 한계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되는 환경이거든요. 학업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김순기(1학년)



조은정(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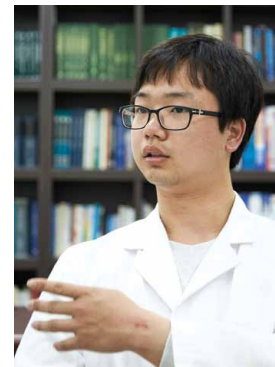
.....
대단위 연구단지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셈인데, 개인적으로 또 학과 차원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은 어떤가?

박준혁 앞으로 면역 분야를 연구하고 싶고, 석·박사까지 계속 공부할 생각이예요.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제 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게 되고, 안심도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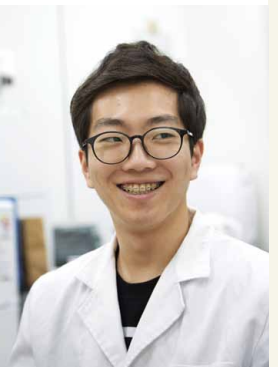
김순기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들이 오셔서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많아질 것 같아요. 교수님들마다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데, 현장감 넘치는 곳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고 싶어요.

김한경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충북도립대가 있는데요. 연결통로가 있어서 오가기도 편해요. 다른 실험실은 벌써 교류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타 대학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것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은근히 경쟁도 될 것 같고요.

조은정 매일 아침 등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 갈래로 열려 있는 가능성의 무한지대 같아요. 다양한 길이 보이고, 무엇이든 도전하면 이룰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깊게 배우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돼요. 지난번 창의융합콘서트에서 어느 강연자 분이 말한 것처럼 창조적으로 융합해나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싶어요. ①



박준혁(1학년)



김한경(1학년)

오송바이오캠퍼스 앞에 자리한 보건의료 분야 6대 국책기관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외의 가장 큰 경쟁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지원시설과 연구인력이 대거 입주해 있다는 사실이다.
오송바이오캠퍼스 바로 앞에 모여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6대 국책기관들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바이오메디컬학과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현장학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998년에 출범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모태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식품 안정성 조사,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운영, 식중독 예방, 급식위생 관리, 의료제품 안전관리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의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 등을 중심으로 의생명과학 지식의 자원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질병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 분야 정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기술 R&D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건산업 가치사슬 단계에서 가장 큰 애로에 직면한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과학적 평가와 심사를 진행한다.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등의 부서를 중심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을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심사와 시험,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 생명과학센터, 유전체센터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백신이나 신종 감염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의과학지식센터를 운영, 국내 연구자들에게 보건의료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분야 교육기관이다. 보건복지전문교육사업을 통해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재양성 허브기관으로서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사업, 정책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Glocal Report

세계 속의 청주, 청대 안의 세계

드넓은 세계를 향한 '글로벌'의 가치와,
지역과 함께 세계를 꿈꾸는 '글로벌'이 공존하는 청주대학교에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배웁니다.

14 Local Together

스페셜 가드너들,
젯빛 도시에 꽃 향기를 심다

16 Global Experience

일본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 후기

18 Ready Action

축구명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또 한 번의 승부차기



스페셜 가드너들, 잿빛 도시에 꽃 향기를 심다

청주시 게릴라 가드닝 행사에 참여한
환경조경학과·비주얼아트학과

2004년 영국의 리처드 레이놀즈라는 청년은 남몰래 집 근처 버려진 땅에 꽃과 나무를 심어 화단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본인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게릴라 가드닝(Guerilla Gardening)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최근 청주시에서도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나 버려진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게릴라 가드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0일 우리대학 중문 인근에서는 환경조경학과와 비주얼아트학과 학생들이 꽃과 나무를 심으며 녹색도시 만들기에 동참했다.

누구도 돌보지 않던 땅이 향기로운 꽃밭으로

회색 건물들로 둘러싸인 잿빛 도시를 생명의 도시, 꽃피는 도시로 변신시키는 일. 그 시작은 작은 화단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투리 땅에 꽃밭을 가꾸는 일부터 낡은 벽에 그림을 그리는 일 등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은 의외로 간단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우리대학 환경조경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50여 명이 동참했다. 전공을 살려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1일 스페셜 가드너로 40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일에 앞장섰다. 청주시의 2015 공원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꽃피는 청주 만들기' 게릴라 가드닝 운동은 '내 집 앞,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대학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지난 4월 10일 행사는 5월에 진행된 자율형 일반 가드닝 행사를 앞두고, 관 주도형 가드닝 행사의 모범적인 화단 조성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1차 게릴라 가드닝 활동이다. 총 16곳에 비올라, 영산홍 등 5,100여 본을 심어 새로운 꽃밭을 만들었고, 환경조경학과 이애란 교수의 식재 지도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한 비주얼아트학과 학생들은 꽃밭 주변에 벽화를 그려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 밖에도 기존 화단의 개보수는 물론, 재활용품을 이용한 가드닝 소품 제작 등도 병행되어 녹색도시 청주의 면모를 드러냈다.

모든 과정이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화단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 환경조경학과 학생들과 이애란 교수 이외에도 수많은 이들의 재능기부와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우리대학 비주얼아트학과 김혜주 교수와 학생들은 벽화를 그렸고, (주)대지개발에서는 무상으로 비료를 지원했다. 지역 예술가들은 버려진 물품을 재활용한 가드닝 아이디어를 선보였고, (사)충북생명의 숲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약속했으며, 지역 주민들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화단을 관리하는 데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게릴라 가드너들은 이날 화단 곳곳에 벽보와 팻말을 설치해 두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승훈 청주시장도 직접 참여해 우리대학 학생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청주시는 앞으로 시민이 직접 장소와 일정, 수종 등을 선택하고 가꿀 경우 시에서 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게릴라 가드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나 원도심 지역에 대한 2차 관 주도형 가드닝 대상지를 확정하고 가드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10월에는 신청자들이 조성한 화단의 사후관리 등을 평가하여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이 만드는 큰 변화! 그 변화의 중심에 청대인의 땀과 노력이 깃들여 있다. 젊은 게릴라 가드너들의 열정이 꽃 향기 가득한 녹색도시 청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지난 4월 10일 우리대학 중문 일원에서 열린 게릴라 가드닝 행사에서는 화단 조성은 물론, 벽화 그리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가드닝 등의 다양한 재능기부가 이어졌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미래

일본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 후기

홍재혁 행정학과 09학번

매해 여름방학이 되면 우리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환경대학 학생들은 각각 3박 4일 일정으로 양국을 오가며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양교의 협력은 물론, 양국간의 이해를 넓히고, 정체된 과거가 아닌 역동하는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일본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KOREA

Cheongju

JAPAN

Tottori

일본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자격	총 평점평균 2.6 이상인 재학생으로, 초급 이상의 일본어 회화능력 소지자
교육내용	하계방학 중 일본 돗토리환경대학이 주관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일본 방문, 일본학생 국내 답방 시 한국문화 안내 및 체험활동
기간	하계방학 중 3박 4일, 총 2회 참가(국내/국외 활동 포함)
비용	왕복 항공료만 자비 부담, 체험비는 양교에서 지원
학점인정	본교 교양 1학점 인정

일본 → 한국, 3박 4일 간의 한국문화체험이 시작되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참여하게 된 일본 단기문화체험 프로그램. 평소 일본에 대해 그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편이었다. 영화나 대중매체로 접해본 것이 전부인 나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웃나라-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은 고작 이 정도였다. 그런 내가 일본 단기문화체험에 참가한 이유는 오직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을 위해서였다. 처음 동기는 막연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일본 공부에 들어갔다. 일본에 대해 바로 알고자 '일본문화기행'이라는 수업도 듣고, 일본어 공부도 하며 준비해나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내 인생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살면서 쉽게 오는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자매대학인 일본 돗토리환경대학 친구들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고 그 후에 우리대학 학생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제교류팀 이종민 선생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에 힘입어 짧은 시간 안에 처음 보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프로그램 일정을 짰다.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동선을 고려해 일정을 하나하나 맞춰나갔다. 특히 일본 친구들과 1:1 파트너를 이루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참여학생들은 각자 기념이 될 만한 선물도 미리 준비했다. 중간중간 청주시청과 학교 스케줄로 인해 초기에 우리가 기획했던 일정과 다르게 일부 변동사항이 발생하기도 했고,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체력이 조금 달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 뿌듯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고, 첫 만남의 어색함이나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었다. 다소 서툴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함께 웃고 알아가는 이 시간을 온전히 즐기게 됐다. 기숙사에서 손짓 발짓으로, 일본어 사전을 찾아가며 대화를 나누었던 그 순간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한국 → 일본, 돗토리현에서 별처럼 빛나는 꿈을 만나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이미 친분을 다진 터라 처음보다 훨씬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저녁식사 후 주어진 자유시간에 일본 친구들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늦은 밤, 후미카라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후미카는 별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였다.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한 밤, 후미카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며 그곳을 소개한 뒤, 우리에게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말했다. 순간,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태어나서 그토록 많은 별을 본 건 처음이었다. 모두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시간이 유독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순간 무언가 내 심장에서 치밀어 오르는 듯한 느낌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후미카는 그렇게 한국 친구들에게 가장 멋진 추억을 선물해주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공항에서 일본 친구들과 작별하는 순간은 정말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다시 방문해 그때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번 일본 단기문화체험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가 이후 나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이후 자매대학이나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하는 등 학교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생에 있어 참으로 긴 여운을 주는 경험이었다고 자부한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부쩍 늘어 무엇이든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 행운처럼 찾아와준 일본 단기문화체험을 통해 나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과 일본에서의 값진 경험이 내게 새로운 꿈에 도전할 용기를 준 것 같다. ㉠

축구명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또 한 번의 승부차기

올해 초, 조민국 감독과 이을용 코치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영입한 우리대학 축구부가 최근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 U리그에서 5연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변화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청주시 용정축구공원에서 연습경기 중인 조민국 감독과 이을용 코치를 만나 그 비결을 물었다.



U리그 5연승, 대학축구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청주대 축구부

1973년 창단 이래 매년 꾸준히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온 우리대학 축구부는 그동안 충북협회장기 대회에서 다섯 차례나 우승하는 등 도내 대학부 축구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전국대회에서는 도내 대회만큼의 성적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우리대학 축구부는 서서히 기지개를 펴듯 조금씩 실력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이영진 현 대구FC 감독이 진두지휘하던 지난해엔 U리그 챔피언십까지 오른 바 있고, 올해 열리고 있는 U리그에선 벌써 5연승 행진을 기록 중이다. 지난 3월 13일 충북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리그 개막전에서는 정우빈 선수와 김경동 선수의 득점으로 전통의 강호 충북대를 2대 1로 격파했다. 이어 3월 20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열린 중원대학교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는 김지훈 선수의 동점골과 김희원 선수의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역전 골에 힘입어 2대 1로 승리를 거뒀다. 또, 4월 24일 영동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역시 김희원 선수의 골에 힘입어 1대 0으로 파죽의 3연승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5월 8일 배재대학교, 5월 15일 건국대학교를 차례로 격파하며 현재 대전충북권역 7개 대학 가운데 승점 15점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를 지켜본 이들은 선수들의 자신감이 전과 다르다는 말을 전한다. 그동안 축구부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조민국 감독, 이을용 코치 투 팀이 이끄는 새로운 전략과 목표

올해 우리대학 축구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새로운 지도부 영입이다. 전 울산현대 조민국 감독과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이을용 선수를 각각 감독과 코치로 선임한 것이다. 41년 동안 줄곧 축구인생을 걸어오고 있는 조민국 감독은 현역시절 명수비수로 이름을 날린 대선배이자 대한민국 축구계의 전설 같은 인물이다. 10년 동안 대표선수로 뛰면서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출전했고, 1994년에 모교인 고려대 코치로 발탁되며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내셔널리그 미포조선 감독에 이어 지난해 울산현대 감독을 맡았었다. 지난 1월에는 코치월드랭킹닷컴에서 발표한 세계 축구클럽 감독 순위에서 47위에 이름을 올리며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을용 코치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끌었던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동안 부천SK, FC서울, 터키 트라브존스포르, 안양 LG 등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2011년부터 지도자로 전향했다. 조민국 감독과 이을용 코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잡은 축구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더 도전적이어야 했고, 더 뚜렷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운동장을 뛰어야 했다. 78개의 대학 축구부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1, 2학년 대회와 전국체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다는 목표로 기본 다지기과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축구명문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의지가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명문의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①



Mini Interview

꼭 오고 싶은 축구부, 대표선수를 키우는 축구부로 만들고 싶습니다

조민국 감독

청주대 감독으로 오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선수들이 꼭 오고 싶은 축구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더 욕심을 낸다면 대표선수가 될 만한 선수를 꼭 발굴해보고 싶습니다.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처음보다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생각이나 경기에 임하는 자세, 몸의 움직임 등을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 점을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청주대 축구부가 전통적으로 수업을 빠지지 않고 그 나머지 시간에 훈련을 하다 보니 연습시간이 조금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쪼개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개인운동이 아니니 팀이 조직적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한 번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목표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합니다. 선수마다 자신이 열심히 하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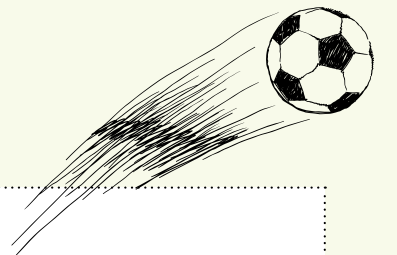


Mini Interview

삼촌, 큰형처럼 제 경험을 모두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을용 코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축구는 저에게 낯설었지만, 이제 당당한 축구명문으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직 반년도 안된 터라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을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수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며 서로 익숙해지려 노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의 경기들도 잘해주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밖으로 고집어낼지 고민입니다. 작년 경기내용을 보니까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이 보이던데, 올해는 라인업을 짤 때에도 공격적인 경기를 염두에 두는 편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시절 경험했던 훈련 방법 등을 후배들에게 전수한다는 마음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길 바랍니다. 삼촌, 큰형 같은 코치로 파이팅하겠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빛나는 청대인의 자부심 K리그에서 뛰는 청주대 출신 선수들

청주대학교 축구부는 중부권을 대표하는 축구명문으로 오랜 기간 충북 체육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K리거들을 배출해냈고, 현재 K리그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역시 각자의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대학교 축구부를 대표하는 현역 K리그 선수들을 소개한다.



신화용
포항스틸러스 골키퍼(GK)

올 시즌 포항과 1년 재계약을 체결한 신화용 선수는 2004년 프로 데뷔 이후 줄곧 포항에서만 뛴 '포항맨'이다. 지난 시즌까지 총 11시즌을 소화하며 K리그 통산 226경기에 출전, 77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다. 골키퍼로는 작은 키인 183cm지만 탁월한 위치 선정과 안정감 있는 방어로 K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 한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민현
부천FC 1995 포워드(FW)

부천FC 공격의 중심인 공민현 선수는 2013년 입단 첫해 28경기에 출전해 팀 최다인 7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시즌 종료 후 부상으로 이듬해엔 재활에 전념하느라 활동이 뜸했지만 3년차인 올 시즌에는 팀의 부주장을 맡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뛰어난 공격력을 자랑하며, 2014년에는 희망대상 스포츠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성준
FC안양 미드필더(MF)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는 실패했지만 FC안양의 신인 선수 공개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조성준 선수는 '연습생 신화'로 불리며 2013 시즌 24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을 기록, 안양 공격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활약으로 그 해 K리그 챌린지 10라운드 MVP에 선정되며 특급 조커로서의 기질을 인정받았다.

WOW People

청.인.보(淸人譜) 청대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22 청인보 제1장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
유재풍 동문

26 청인보 제2장
동일유리(주) 대표이사
김영진 동문

28 청인보 제3장
무대미술가
임일진 연극학과 교수



섬김과 나눔으로
지역의
큰 바위 얼굴이
되다

유재풍 동문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 변호사, 청주YMCA 이사장
법학과 76학번

유쾌하다. 시종일관 호탕한 목소리 뒤로 희망이 슬며시 다가온다. 에너지적이다. 아니, 이 한 마디로는 좀 부족하다. 충청지역에서 사건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수십 개의 단체와 인연을 맺고 각종 봉사활동과 시민활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매일 아침 영어공부를 빠뜨리지 않는 이 사람. 청주YMCA 이사장으로 선출된 유재풍 동문이 만들어가는 희망을 만나보았다.



사람을 향한 애정,
변호사의 길 위로 '에너지꽃'을 심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학교와 사회에서 받은 것들을 이제 조금씩 되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지난 3월 청주YMCA 제36대 이사장에 선출된 유재풍 동문은 세상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변호사다. 청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충청일보 논설위원, 간송문화재단 이사, YMCA 이사, 새청주기독실업인회 회장,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총재, 청주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 법무부 법교육 강사,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까지. 그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청주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의 경력 페이지를 읽으려면 스크롤 바를 한참이나 내려야 한다. 1997년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오늘날까지 참여해온 사회활동의 면면을 보면 뭐든 나뉘주고 싶어하는 사람인 게 분명하다.

법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겸손으로 섬기자는 신념으로 일하다 보니 일과 관련된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유재풍 동문. 그의 말 속에서 2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또 청주 시민으로서 청주와 충청지역을 정성으로 보듬어온 '시민활동가'의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 일들과 뗄 수 없는 운명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와 기분 좋은 웃음 뒤엔 공군법무관으로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을 때의 패기와 강직함이 느껴진다.



청주YMCA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그는 사실 TV 시사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청주지역 사람이라면 금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방송인이기도 하다. 13년 넘게 청주KBS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97년부터는 극동방송 청소년선도캠페인에 목소리 출연 중이다. 중부매일신문에는 '아침뜨락' 칼럼을 쓰고 있어 지역의 신문과 라디오, TV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저는 더 많이 공부하고 깨우칠 기회를 얻은 행운아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가 바르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지금의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가난으로 고단했던 유년시절을 지나 외교관을 꿈꾸던 청년은 청주대와 펜실베이니아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더 붙어 사는 세상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슴 속에 그려왔다. 2001년부터 인연을 맺은 청주YMCA에서 몇 년을 고사한 끝에 올해 이사장 직을 맡은 것도 지역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 조직입니까? 청년을 섬기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단체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생명운동과 평화운동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YMCA의 이러한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청주YMCA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는 유재풍 동문에게 또 하나의 목표와 포부가 생겼다. 관심이 맞닿은 곳에서 또 다른 길이 열리듯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각 분야의 사람들과 맺어온 인연을 확장하고 가치롭게 만드는 에너지가 남다른 그다.

섬김의 자세로
영혼이 충만한 사회를 꿈꾸다

유난히 '사람'에 천착하는 그에게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는 도전이라는 말 대신 풀어가야 할 숙제라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영혼과 정신이, 도덕이 없는 경제가 무슨 소용일까요. 물질보다 정신이 먼저이고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도 늘 첫 번째로 다짐하며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사람이든 조직이든 덜 아픈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껏 자신을 키워준 고향과 모교, 지역사회에 감사하기에, 그래서 더 신세를 갚아야 한다며 올해 자신의 슬로건을 '에너지이저'로 정했다는 그. 앞으로 청주는, 또 충청지역은 이런 그의 마음결과 손길로 인해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에 등장하는 큰 바위 얼굴 같은, 희망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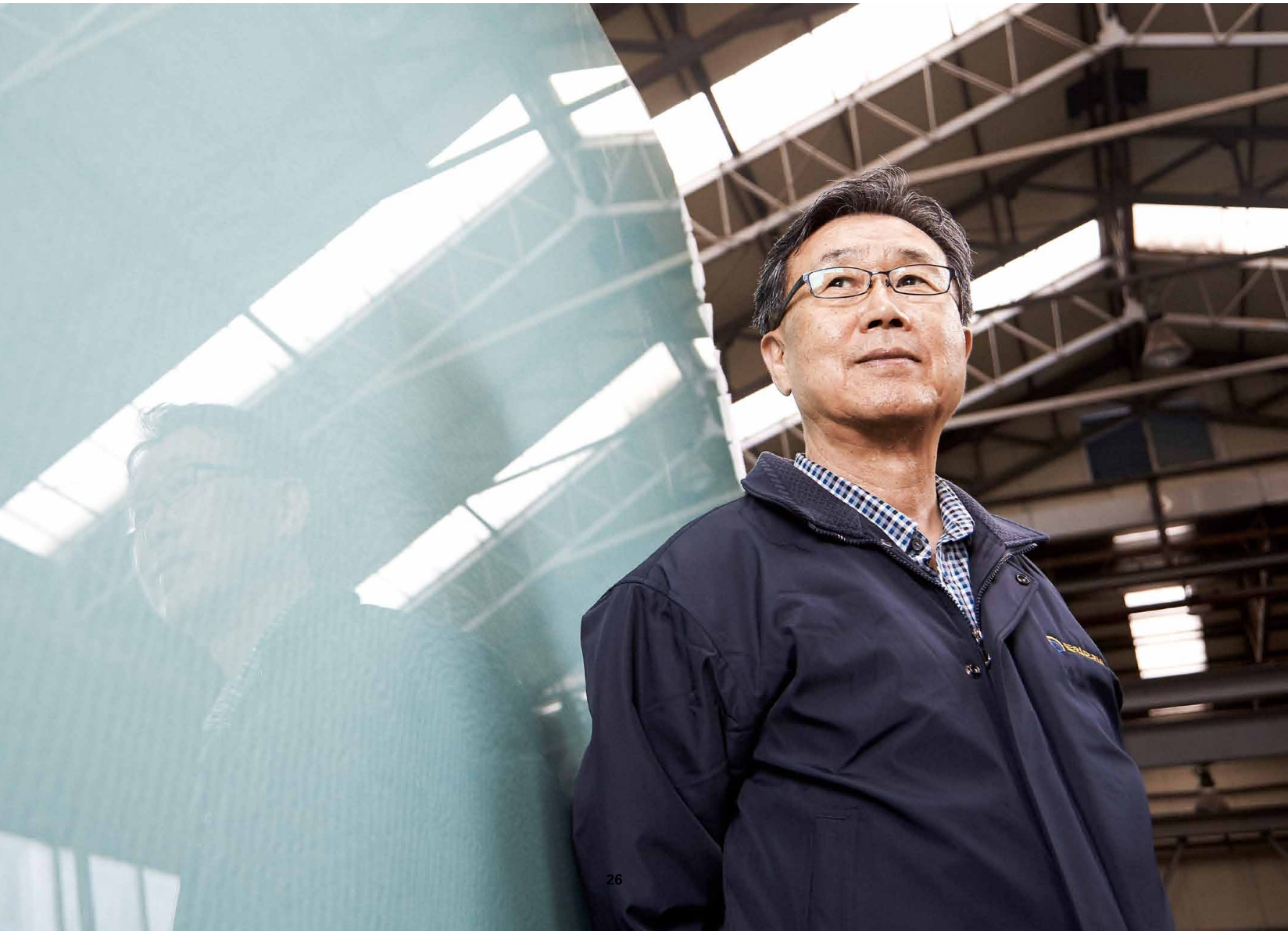


‘유리’ 한 길로 명문 장수기업의 대를 잇다

김영진 동문

동일유리(株) 대표이사 / 상학과 59학번

오로지 한 길, 유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일을
가업으로 이어온 이가 있다. 50년 동안
우리나라 유리산업계를 이끌어온 김영진
동문은 아들과 함께 선친의 일을 이어가며
100년 기업을 내다보고 있다. 2013년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된 동일유리(株)의
대표이사로 2014년에는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상을 수상한 김영진 동문을 만나
유리 외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인들 사이에서 일명 ‘김 유리’로 통하는 김영진 동문은 평생을 유리와 함께 해왔다. 올해로 그는 선친이 창업한 동일유리와 똑같은 나이, 75세를 맞았다. 1940년 청주 성안길 남문로 1가에서 시작된 동일 초자점(硝子店)은 한국 유리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다. 그 긴 세월 동안 충청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건설현장에 쓰인 유리의 태반은 동일유리가 생산해냈다. 한국전쟁 후 폐허 속에 건물을 지어 올릴 때에도 동일유리가 끼워졌다.

“9남매 중 장남인 탓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청주대에 다닐 때도 매일 하얀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판유리를 날랐지요. 규모는 작아도 한 업종을 오래 이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속 바위에 이끼도 하루 아침에 끼지 않잖아요.”

스무 살 청년 그때처럼 지금도 매일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김영진 동문에게 지난 50년은 변함없는 하루, 한 달, 일 년의 반복과 연속이었다. 선친이 작고하신 1978년부터 대표이사로 뛰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키워왔고,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장수기업으로 만들었다. 오로지 유리에만 집중해왔기에 업계에서 그 어떤 회사보다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고, 또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올 수 있었다.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남 김정환 기획이사의 기억 속에서도 김영진 동문은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아버지였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을 줄 아는 리더였다.

“제조업이란 게 기술 전수가 전부이고, 사람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일도 그르치지 않는 법이지요. 우리 회사 사훈이 ‘바르게 가자, 함께 가자, 앞으로 가자’인데, 직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라는 그는 언제나 직원 복지를 고민하는 대표다. 공장을 둘러보며 직원들 낮빛을 살피는 것으로 아침을 열 정도로 ‘함께 가는’ 이들의 마음 헤아리기에 유독 정성을 들인다. 선친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자산이다.

회사 대표의 마음이 이러해서일까. 75년 동일유리의 역사에서 비교적 큰 위기는 없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고비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1990년에는 북충유리(이중유리) 제조설비를 도입하면서 유리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11년부터는 로이유리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해 단열성능이 우수한 북충유리를 만들고 있는데, 태양광 차단과 방음, 단열효과가 높아 고급건축물의 창문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올 5월엔 오창에 제2공장을 완공해 늘어나는 주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유리는 나의 큰 재산입니다. 내 일이자 나를 키워준 존재이지요. 이 나이에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본이나 유럽에는 100년 기업들이 많은데, 동일유리도 장수기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맙고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함께하고 있어 든든한 마음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남 김정환 이사가 에너지 컨설팅과 같은 유리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김영진 동문. 가업을 이어가면서 청주대를 창학한 설립자 형제분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모교에 대한 응원의 말도 잊지 않았다. 역사와 저력이 있으니, 청대인의 자부심으로 희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75세에도 또 다른 도전을 꿈꾸는 노장의 당부다. ①

살아 숨쉬는 미술로 무대 위에 생명을 불어넣다

임일진 교수
연극학과 교수, 무대미술가



임일진 교수는 자신만의 화법으로 연극, 오페라 무대를 빛나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무대미술가 중 한 명이다. 무대미술이 충분히 미학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며 남다른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그는 이탈리아에서의 오랜 공부와 연극 현장에서의 무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미술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다. 5월 12일부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연극 <페리클레스>의 무대 앞에서 그를 만났다.

셰익스피어가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희곡 <페리클레스>의 무대가 이처럼 꾸며질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 무대를 뒤덮은 모래 저 끝 깊숙이 크고 환한 달이 온 우주처럼 떠 있다. 오른쪽엔 콘트라베이스 하드 케이스가 관처럼 놓여 있고, 왼쪽엔 배 한 조각이 주인공의 여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두가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비극을 피해 무려 15년 동안 5개 나라를 떠돌게 되는 페리클레스의 여정을 위한 장치들이다. 임일진 교수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페리클레스의 무대를 위해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과감한 시도를 주저하지 않았다.

“작품이 끝난 뒤에 무대가 좋았다는 말보다는 작품 자체가 좋았다는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무대미술은 나의 미술이면서 같이 일하는 모든 이의 예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예술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제 역할을 다해주는 무대미술가가 되길 원합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예술활동을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찾던 그는 이탈리아로 건너가 무대미술을 파고들었다. 12년 동안 이탈리아의 다양한 무대를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디자인과 파인 아트의 중간지점을 찾아낸 그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무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왔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멋진 무대만을 좇기보다는 시도해본 적 없는, 그래서 생경하고 묘한 느낌을 살려내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2006년에 오페라 <천생연분>을 작업할 때는 무대가 온통 흰색이었어요. 작화도 없이. 남들이 잘 안 하는 짓을 한 셈이죠.”

연출자와 큰 틀에서 작품 이야기를 시작해 함께 방향을 잡아가고, 무대 이미지를 만들어가며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즐긴다는 그는 과감한 도전들이 받아들여져 충분히 표현되었을 때의 희열을 에너지 삼아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있다. 무대미술이 배우의 연기와 함께 호흡하고 융해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가 그에게 최고의 순간이다.

이런 순간을 맛보기 위해선 온갖 노력에 인색해질 수 없다. 극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하니 텍스트를 보는 감각도 있어야 하고, 문학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작품을 미술로 시각화하려면 제도작업부터 수많은 수학적 계산도 뒤따른다. 공부 많이 해야 하고, 철저히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스태프들과의 소통에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 연극 무대를 꿈꾸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신의 일을 예로 삼아 수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작품 자체를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되든 연출자가 되든 무대미술가가 되든,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든 자신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지 말고, 꿈을 계획하려 들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니 이 무대미술가, 한 공주를 얻기 위해 뜻하지 않는 긴 모험을 떠났던 페리클레스를 닮았다. 원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뛰어드는 용기 말이다. 그 용기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모험 안에서 그는 또 다른 인생과 희망을 만날 것이다. ④

배움의 나무 아래
청춘의 민낯은 찬란하여라

보라! 푸른 맥박이 팔딱이는 이곳을.
들어라! 세상의 감동이 되겠다는 선한 다짐을.
지적 모험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은 다시 창의력을 살찌우는 지금 이 순간.
두 발로 생각하고, 두 손으로 실천하리라.
뜨거운 발길이 닿는
길 위로 수만 가지의 초록이 만개한다.



We Are Young

청대인의 젊음과 패기로 만드는 새로운 길

뜨거운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젊은 그대의 심장에,
누구보다 치열한 오늘을 살고 있는
청대인의 땀과 노력에 아낌 없는 갈채를 보냅니다.

**32 Young
Challenger 1**
이승우
문헌정보학과 08

**33 Young
Challenger 2**
장수희
간호학과 15

**34 Young
Challenger 3**
조성욱
산업디자인학과 11

**35 Young
Challenger 4**
도스톤
영어영문학과 15

**36 Young
Challenger 5**
허무연
경영학과 10

도서관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를
넘나들다

이승우 문헌정보학과 08학번
청원도서관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

지난 1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8시간씩 청원도서관에 머물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사이를 넘나들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4학년이라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헌정보학의 큰 갈래 중에 정보학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어떻게 하면 도서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화롭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래서 도서관의 가치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았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장수희 간호학과 15학번
2015학년도 입학식 신입생 대표 선서,
보건의료대학 전체수석

입학식 날 3,020명의 신입생을 대표해 선서를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나에게 당당한 대학생이 되어야겠다는 거였어요. 오랜 역사를 지닌 청주대학교의 일원이 된 만큼 청대인의 자부심으로 멋지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입학할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공부와 별반 다를 게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첫 학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역시 '큰 학문'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파고 들어 꿈을 이뤄가는 현명한 스무 살이 되고 싶어요. 지켜봐 주세요.

청대인의
자부심으로
당당한
대학생이 되다



조성욱

산업디자인학과 11학번
제2회 충북의료기기디자인공모전 대상 수상

평소 공공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이번 의료기기디자인공모전에도 즐겁게 몰입했습니다. '듀얼 라이트닝'이라는 작품인데, 긴 봉 형태의 비형 라이트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오면서 한쪽 끝으로도 선명한 빛을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평가에 기대와 보람도 컸고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8년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산업디자인학과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착한 디자인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더하고 싶습니다.



착한 디자인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영어교사를
꿈꾸다



도스톤 Doston

영어영문학과 15학번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유학생

낯선 나라에서 공부하다 보니 문득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그리움이 커질 때도 있지만, 친절하신 학과 교수님과 친구들, 아홉 명의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따뜻한 날씨여서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마냥 즐겁습니다. 앞으로 영어와 일어, 프랑스어, 터키어에도 도전해볼 생각이예요. 청주대에서 4년의 공부가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표현하고,
앞서
나아가는
비결을 찾다



허무언

경영학과 10학번
청주대학교 홍보대사 '청연' 멤버

사람들에게 나를 잘 표현하고 설명하자!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활동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청주대학교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우리대학의 역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절로 흥이 나는 걸 보면 제 적성에 딱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엔 고등학교 후배들 앞에서 제가 직접 학교소개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시간들이 커리어 쌓이면서 저만의 특별한 포트폴리오가 완성되겠죠?

Issue & News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과 내일을 잇는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과 혁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8 Focus On

청주대,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
가동 외

42 News Brief

청주대,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28명 배출 외

44 People News

김성일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우수평가자 선정 외

46 Special Lecture

김원용
명품나물(주) 대표이사
명사초청 특별강좌 외

Focus 1

청주대,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 가동

우리대학이 공무원 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부권 인재양성 요람'의 명성 회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4월 7일 오후 4시 청암홀에서 열린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공청회'에는 황신모 총장과 교수, 직원, 학생,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경청호 충청도총동맹회장을 비롯한 동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대학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양성종합계획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양성 60명을 시작으로 내년 80명, 2017년 100명 등 단계적으로 합격자를 늘려 2020년 200명까지 졸업생의 공직 진출 확대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고시준비반으로 운영됐던 '청석헌'을 공식기관으로 부활시켜, 올해 150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 이상이고 영어, 한국사 과목의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순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방학 중 숙식을 지원하는 등 올해 8억 3천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는 유명 강사의 특강, 본인이 원하는 인터넷 강의, 책임교수의 개인지도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황신모 총장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취업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이 청주대학교가 새로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중요 정책의 결정에 있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시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대학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33명, 37명의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Focus 2

청주대, 비즈니스 아이디어(BI) 토크콘서트 개최

우리대학은 지난 4월 9일 종합강의동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BI)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과 손잡고 진행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청년창업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2015 대학생 실전창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청년들에게 '성공창업의 옴'을 틔우는 과정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먼저 생생농업유통 김가영 대표의 특강으로 창업마인드 및 비즈니스아이디어(BI) 사업화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BI 사업화지원 성공자 그룹별 토크를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성공창업을 위해 우리대학은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교과), 창업학점교류제에 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창업활동 우수장학금을 마련하는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공고하게 구축했다. 특히, 재학생들이 창업할 경우 학업 단절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간 우수한 창업교과를 수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Focus 3

청주대, 신입생 입학식 및 예비교육 실시

우리대학의 2015학년도 신입생 3,020명의 입학식이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 반 석우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입학식은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입학생 선서, 총장 환영사, 학교 배치 증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입생을 대표해 선서자로 나선 장수희(간호학과) 학생은 “학칙과 제반 질서를 준수하고 학문과 인격도야에 매진할 것은 물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장래 국가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했다.

황신모 총장은 환영사에서 “청주대학교는 여러분이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청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매진하여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을 활용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달라”고 신입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오후 2시 20분부터 다음날 25일까지는 전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 학생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동문 특강 및 학생회장단 인사 등으로 구성된 1박 2일간의 예비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 기간 중 신입생들은 우리대학 기숙사에서 숙박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일차인 2월 25일 오전 11시 반 시행된 모의 토익시험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Focus 4

간호학과, 졸업생 전원 100% 국가시험 합격

2015년 우리대학 간호학과 졸업생 전원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개설 이후 모든 졸업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이 지난 2월 23일 주관한 '제5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간호학과 졸업자 88명 모두 합격통보를 받은 것이다.

우리대학 간호학과는 책임지도교수제를 통해 재학생 전원이 4년간 개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수 지도를 받고 있다. 특히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철저한 학사관리, 튜터링 장학금 지원, 모의고사 및 국가고시 특강 등 학과 차원에서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취업을 위해 학과 자체 모의면접 시행, 전문적 이미지 메이킹, 1:1 개별 취업 코칭 등의 다양한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졸업생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충북대병원, 청주성모병원 등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확정지은 상태다.

간호학과장 전해옥 교수는 “청주대학교 간호학과는 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동시에 간호사로서 필요한 덕목인 덕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실제 간호사로서 임상환경에 잘 적응하고 치료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훈련에 중점을 두고, 1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재학생 및 졸업생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지난 2009년 40명의 정원으로 간호학과를 신설했으며, 2010년 65명, 2011년 95명, 2012년 100명으로 꾸준히 증원해왔으며, 역대 종합취업률 100%를 자랑한다.



청주대,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28명 배출

지난 2월 11일, 전국 각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5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우리대학은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모두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3년 11명에서 지난 해 2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완전한 상승세로 돌아선 우리대학 사범대학의 임용시험 합격률은 올해도 28명의 중등교사를 배출하며 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체육교육과 출신 14명, 음악교육과 출신 8명이 합격하며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마세건 학생, U대회 펜싱 국가대표 선발



우리대학 체육교육과 3학년 마세건 선수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펜싱 에페 종목 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파견선수 선발 전 에페 종목에 출전한 마세건 선수는 4강전에서 한체대 구영모 선수를 12대 6으로 꺾었다. 결승전에서는 한체대 정태승 선수를 15대 12로 누르며 우승과 함께 대표 선발을 확정지었다.

청주대, 인문학 특강 개설



우리대학은 지난 4월 14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에세이스트이자 소설가인 남인숙 씨를 초청해 제1회 '저자와의 만남'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새로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인성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인문학특강- '저자와의 만남' 토크콘서트>는 연간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대,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우리대학의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13일 청암홀에서 열렸다. 학사 2,491명, 석사 83명, 박사 16명이 이날 졸업식에서 각각 학위를 받았다. 행사는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증서 수여, 수석 졸업생 표창, 공로상 수여, 식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서는 관광경영학과 서윤경 졸업생이 영예의 수석졸업자로 선정되어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상을 받았고, △김서희(법학) △손미성(영문) △황보현(토목공학) △김수연(지리교육) △이혜림(레저스포츠) △박은지(의료경영) 졸업생이 각각 단과대학 수석을 차지, 총장상을 수상했다.

청주대-13공수여단, 국방안보학과 운영협약 체결



우리대학은 지난 2월 23일, 제13공수특전여단과 계약학과로 국방안보학과를 운영키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13공수여단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황신모 총장과 정재학 13공수여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의 인력양성과 개인교육 확대를 위한 상호교육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우리대학 군사학과와 계약학과 형태로 개설되는 국방안보학과는 정원 15명의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학·군제휴협약에 따라 이미 설치된 우리대학 13공수여단 캠퍼스(청주대 흑표캠퍼스)와 본교 강의실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청주대, 신현돈 육군 예비역 대장 초빙교수 선임



우리대학이 신현돈 육군 예비역 대장을 초빙교수로 선임했다. 신현돈 교수는 그간 사단장, 특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1군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대의 지휘관과 참모를 역임하며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쌓아왔다. 신현돈 교수는 "나고 자란 충북 지역에서 미래의 동량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맡게 돼 감회가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청주대, 교직원 퇴임식 거행



우리대학은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 교수 4명, 직원 2명의 퇴임식과 함께 정년 및 명예퇴임을 하는 교직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유재형(법학과), 정장식(일어일문학과), 유근배(응용화학과), 이재국(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정년퇴임하고, 직원 김선형(산학협력팀장), 배금순(학생복지팀) 씨가 명예퇴직했다.

청주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식 개최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우리대학 대학원 세미나실에서는 16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31명의 입학식이 열렸다. 행사는 개회사, 학사보고, 환영사, 학생선서, 학교배지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청주대-중국 목단강사범대학 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중국 헤이룽장성 목단강사범대학과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8일 미래창조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신모 총장과 목단강 사범대학 정타오 국제교육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목단강사범대학은 합작분야인 생물학 전공을 개설해 중국학생을 선발하며, 우리대학은 해당 전공의 교수를 파견하고 커리큘럼, 교재 및 관련 수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도 상대국의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연수반과 유학반 등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상호교류, 학술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청주대-공군사관학교 학술교류 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공군사관학교가 지난 4월 10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교육·연구 분야 등의 교류 증진을 위한 협약을 재개정해 체결했다. 교수 및 교관의 교류, 생도와 학생의 교류, 공동연구와 학술회의 개최 등 기존 협약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에 덧붙여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비행교육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교육 시설과 장비의 상호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황신모 총장은 "협약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군사관학교의 성무비행장 이용이 가능해져, 항공운항학과와 비행훈련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공군사관학교의 배려에 크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교수소식

김성일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우수평가자 선정



문화콘텐츠학과 김성일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14년도 인문사회 분야 우수평가자'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2014년 한 해 동안 인문

사회분야 연구사업 평가에 참여한 1만 여명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어문학 △역사철학 △법정상경 △사회과학 △문화융복합 등 5개 분야별로 각 10명씩 모두 50명을 우수평가자로 선정했다.

김찬석 교수

한겨레 PR전문가과정 책임교수 선임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가 한겨레 PR전문가과정 책임교수를 맡았다. 김찬석 교수는 제일기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시티은행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 등 PR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PR 및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윤식 교수

칸 영화제 비경쟁부문 초청



영화학과 김윤식 교수가 제작, 감독한 단편영화 <설화>가 칸영화제 비경쟁부문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4월 16일 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68회 칸국제영화제의 공식 경쟁·비경쟁 부문 초청작을 발표했다. 김윤식 교수의 영화 <설화>는 칸영화제의 공인참가 자격을 부여 받아 영화제 기간 중 정식 상영,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제68회 칸 국제영화제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남부도시 칸에서 개최됐다.

이미재 교수

<내 생의 미래는 오늘이다> 회고전



공예디자인학과 이미재 교수가 지난 4월 24일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 35년간의 교수활동과 40여 년 작품활동을 돌아보는 <내 생의 미래는

오늘이다(The future of my life starts today)> 회고전을 가졌다. 이번 회고전에서 이미재 교수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연대기적으로 조망하고, 본인 그 동안 보관하고 있던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 전시해 선보였다.

박호표 교수

운보문화재단 선임이사 선임



관광경영학과 박호표 교수가 운보문화재단 선임이사에 선임됐다. 지난 4월 3일 열린 운보문화재단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기 만료로 공석이던 이사 4명을 새로 선임했다. 박호표 교수를 비롯한 선임이사들의 임기는 4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청원구 내수읍 흥동2리에 위치한 운보의 집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태철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임명



시각디자인학과 김태철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임기는 신규 임명자의 경우 2년이다.

김태훈 교수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공로부문 수상



음악교육과 김태훈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2014 우수지회로 충북지회가 선정되어 기쁨을 더했다. 김태훈 교수는 청주시립합창단 초대 상임지휘자와 한국음악협회 이사를 역임했고, 1987년에 지역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인 충북오페라단을 창단해 충청 지역의 종합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곽동철 교수

한국도서관협회장 당선



문헌정보학과 곽동철 교수가 지난 4월 30일 서울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27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곽동철 선임 회장은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2년이다. 곽동철 교수는 "임기를 다할 때까지 우리 도서관협회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도록 마중물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문소식

윤종현 동문

경북정책연구원 정책실장 임용



윤종현(신문방송학과, 88년 졸업) 동문이 사단법인 경북정책연구원 정책실장으로 영입됐다. 신입 윤종현 정책실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우리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매일신문에서 언론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경북일보, 매일신문을 거쳐 경북매일신문 문체부장, 경주본부장, 정치부장 등을 거쳤다.

이재길 동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부임



이재길(행정학과, 08년 졸업) 동문이 지난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에 부임했다. 이재길 지사장은 우리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장과 본부 정보화기획팀장, 자격정보관리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충북에는 9년만에 다시 돌아왔다.

박상갑 동문

LX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장 취임



박상갑(지적학과, 83년 졸업) 동문이 지난 1월 12일 LX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신입 박상갑 본부장은 1984년에 지

적공사에 입사한 후 청주시시장, 충주지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본사 지적선진화부장으로 근무해오다 올해 충북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김종성 동문

한국남동발전 사외이사 선임



김종성(경영학과, 92년 졸업) 동문이 한국남동발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종성 선임 이사는 서울 출신으로 청주상고와 우리대학 경영학

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국장을 지낸 뒤 하남경제발전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한국남동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리되어 창립된 발전회사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정동교 동문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임명



정동교(자원공학과, 80년 졸업) 동문이 지난 2월 23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신입 정동교 본부장은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자원부에서 기술서기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 5월 현재의 광해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이래 감사실장과 경인지역본부장, 사업기획실장, 지역진흥실장, 강원지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강진규 동문

성안길상점가상인회 회장 취임



강진규(행정학과, 92년 졸업) 동문이 지난 4월 3일 열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2015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신입 회장으로 취임했다. 강진규 회장은 1996년부터 신용카드 조

회기 회사인 스피드넷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운영위원으로 20여 년 동안 활동해왔다.

권태호 동문

검사직 퇴직 후 법무법인 '청주로' 합류



권태호(법학과, 77년 졸업) 동문이 36년간의 검사 소임을 마치고 지난 3월 25일 명예퇴직, 법무법인 '청주로'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태호 동문은 사법연수원 9기 출신으로,

197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되어 열혈검사로 이름을 떨쳤고, 2004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지방대 출신 검사장의 자리까지 오른 바 있다.

신순구 동문

제주지검 사무국장에 임명



신순구(법학과, 86년 졸업) 동문이 제주지검 검찰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지난 2월 16일, 법무부는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신순구 사무국장은 청주 출신으로 우리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그 동안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대검찰청 감찰2과 서기관 등을 역임했다.

김창호 동문

괴산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



김창호(교육대학원, 2000년 졸업) 동문이 제23대 괴산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신입 김창호 교육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1978년 가곡중학교 교사로 교직에 입문해 가곡중, 미원중 교감과 안내중, 미원중, 가경중, 흥덕고 교장을 역임했다. 그는 교육장에 취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행복한 교육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사초청 특별강좌 2015년 3월~4월

2015. 3. 18

창조와 기업가 정신

김원용 땅콩나물(주) 대표이사



김원용 땅콩나물(주) 대표가 지난 3월 18일 청암홀에서 '창조와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원용 대표는 "성공을 목표로 움직이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대의를 위해 애쓰다 보면 부산물로 성공이 뒤따라 온다"고 말하고, "태도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천성은 못 바꾸지만 제2의 천성인 습관은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용 대표는 경북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983년 금성반도체에 입사해 그 동안 LG반도체 청주 공장장, 현대전자 구미 공장장, 하이닉스 반도체 상무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세미텍 대표를 맡아 6년만에 20배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 '매출 1천억 클럽'에 가입시키고,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키운 성공신화를 일구었다. 2013년 세미텍 대표를 사임한 그는 지난 해 농업회사법인 땅콩나물(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2015. 4. 8

꿈, 용기, 겸손- 운명을 바꾸는 키워드

김기용 전 경찰청장



지난 4월 8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특강에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강단에 섰다. '꿈, 용기, 겸손- 운명을 바꾸는 키워드'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김기용 전 청장은 불우했던 접시닥이 소년이 한 나라의 경찰 총수가 되기까지 자신의 일대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학연, 지연, 혈연 없이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건 오직 꿈 하나를 보고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꿈이 있으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용기 역시 반드시 가져야 할 신념 중 하나이며 겸손함 또한 인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충북 제천 출신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이듬해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2년 경정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그는 충북경찰청장, 경찰 차장을 거쳐 제17대 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석고문으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2015. 3. 25

차별화가 살 길이다

스티브 김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



'아시아의 빌 게이츠' 꿈·희망·미래재단 스티브 김 이사장이 지난 3월 25일 청암홀에서 '차별화가 살 길이다'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스티브 김 이사장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미국에 건너가 1984년 Fibermux Corp사를 창업해 1991년 美 ADC Telecom에 5,400만 달러에 매각했다. 1993년 설립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업체 Xylan을 3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하고, 전 세계 60개국에 판매망을 구축하며 연 매출 3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1999년 프랑스 알카텔사에 Xylan사를 20억 달러에 매각한 스티브 김 이사장은 2001년 '꿈·희망·미래재단'을 설립해 서울 및 연변에 있는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등에 교사와 도서관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복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2015. 4. 15

꽃은 태어난 곳을 탓하지 않는다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지난 4월 15일에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박경국 전 차관은 강의를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아스팔트와 벽 사이에 핀 꽃 사진을 보여주며 "꽃은 어떠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패하고 방향했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언급하며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무모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그 도전에 동기가 됐던 책 <갈매기의 꿈>, <신념의 마력>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경국 전 차관은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농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충북 단양군수, 내무국장, 지역협력국장, 행정부지사, 국가기록원장, 제2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2015. 4. 1

오페라의 물결

정지철 김자경오페라단 예술감독



정지철 김자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지난 4월 1일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 강연자로 강단에 섰다. '오페라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그는 "현대인의 각박한 삶에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음악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대인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음악이 자유롭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페라의 선구자로 유명한 작곡가 로시니, 벨리니, 도니제티, 베르디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지철 예술감독은 이탈리아 로비고 F.Venezze 국립음악원을 졸업했으며, 이탈리아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콩쿨, 라 벤나다리오 인 무지카 국제콩쿨에 입상한 바 있다. 그 동안 <돈 지오반니>, <사랑의 묘약>, <한여름밤의 꿈> 등 다수의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아 활동해왔다.

2015. 4. 29

자신만의 콘텐츠 찾기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지난 4월 29일 우리대학을 찾은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은 청암홀에서 특별강좌를 열고 학생들에게 "미래는 콘텐츠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명성 감독은 "신문의 칼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트렌드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찾아 차곡차곡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 등 한국 뮤지컬 성공신화를 기록한 박명성 감독은 서울예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그 동안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초대 회장, 서울연극협회 회장,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활동해왔으며, 2010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상), 제24회 이해량 연극상 등을 수상했다.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종류

대학발전기금_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발전기금_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대학발전기금_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대학발전기금_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공연예술지원기금

- 연극/영화지원기금
-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급여 이체

청주대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363-764)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인재의 꿈을 읽다!

미래를 연다  세계로 간다

당신의 열정은 미래보다 커다랗기에
당신의 가능성은 세계보다 넓기에
당신의 내일과 청주의 오늘이 만나
가장 뜨거운 변화와 혁신을 시작합니다.
'신수도권 명문대학' 청주대학교에서
미래로, 세계로 마음껏
당신의 꿈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인재의 꿈을 읽다 - 청주대학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생중심대학

- 장학금 360여억 원 지급(2013년)
- 외국인 교수비율 전국 11위(2014 조선일보-QS 대학평가)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세계 29개국 150여 대학과 자매결연)
- 최신 아파트형 기숙사(2,300여 명) / 신입생 전원 수용 가능
-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공/진로/대학생활/취업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도교수제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무역전문기양성사업 선정(2012~2015)